

환희

윗말 태호와 승득이는 뒤통수를 긁을 수밖에 없었다.
—— 그렇지만 성인네 아주머니의 흰머리와 딱 마주치니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
사실 아무도 그 말을 성인네 아주머니에게 똑바로 일러줄 용기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저 딱하기만 하였다.
성인이와 같이 나갔던 태호와 승득이가 돌아온 후부터는 성인네 아주머니는 화장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너그러웠던 얼굴이 뭉친 것같이 되고 눈동자가 모로 박혀 보였다.
승득이와 태호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전하려다가도 한
군데에 응결된 것 같은 그 들뜬 눈을 보자 그만 용기를 잃어버렸다.
겪어 온 너무나 벅찬 체험 앞에 거의 치매(痴呆)가 되어 버린 이 두
산골 청년들의 가슴에 아직까지도 또렷이 찍혀 있는 그 처참한 광경
—— 거기에는 산탄(散彈)에 쓰러진 성인이가 무섭게 변모된 모습으
로 퉁굴고 있었다. 이미 죽음에도 익어 버렸던 싸움터였으나 찌는 듯
한 남쪽 나라 강렬한 태양 아래서 고락을 같이해 왔던 벗의 죽음을
보니 그저 기가 막혔다.

둘이서 시체의 수습을 하였는데 파리가 끔찍하게 뒤은 얼굴에 흙을 얹었을 때 터져 나왔던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재앵하다. 요즘 와서 승득이와 태호는 성인네 아주머니와 마주칠 적마다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든다. 끔찍한 주검이 눈앞에 떠오른다.

말 한마디로 성인네 아주머니의 모로 박힌 눈동자와 뭉친 것 같은 얼굴이 그 끔찍하게 파리가 뒤은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버릴 것 같은 일종의 미신으로 몸이 오싹해지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났다. 그만하면 거의 단념했을 텐데,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었으나, 성인네 아주머니는 정거장까지의 시오릿길을 날다시피 다녔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고 머나먼 남양——몇 달이나 걸린다는 머나먼 길을 오자면 그 만한 시간은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태호와 승득이가 돌아올 때도 그만큼 날짜가 걸렸다니깐, 곧 뒤이어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땅을 밟기에는 아직 좀 일렀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가는 날이 지루했다. 흐르는 시간이 아들과의 사이에 놓여진 공간을 메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성인네 아주머니에 있어서 시간은 희망과 기대 그것이었던 것이다.

기차가 지나간 텅 빈 대합실에 성인네 아주머니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하늘 높이 가볍게 펴진 솜구름이 가을이었다.

승득이와 태호가 돌아온 지도 이미 넉 달——머나먼 길을 위하여 넉넉하게 잡아 두었던 시간도 이제는 가 버린 지 오래다. 무서운 의혹이 고개를 듈다. 혹시나……?

성인네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 만큼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무엇이든 참아 왔다. 못 당할 일도 당할 만큼 당했다. 기막히는 일도 그냥 삼켜 왔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성인네 아주머니는 마을을 향하여 훨훨 걸어갔다. 속에서 타는 불

덩이가 몇 달 사이로 폭삭 수척해진 몸을 그렇게 훨훨 달리게 하는 것이다.

면소(面事務所)가 보였다. 성인네 아주머니가 이 면소에 처음 들어 가 본 것은 성인이가 여덟 살 때였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거기서 차마 못 당할 일을 당했던 것이다.

집에 들어박혀 소같이 일만 하던 성인네 아주머니가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가볼 용기를 가진 것은 오직 성인의 위한 마음에서가 아니었던가? 아들이 학령이 되어도 편지 한 장 띄우지 않는 그런 남편에게 난생 처음 하는 반항이 어머니로서의 지성과 얹맺혀져 그를 거기까지 끌어갔던 것이다.

면소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유리창을 박은 초라한 집이었으나 성인네 아주머니에게는 자못 위엄이 있게 보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여야 좋을지 얼떨하였다.

새파랗게 젊은 서기가

“무슨 일이죠?”

하고 통명스럽게 물었다.

“저 —— 아들아이를 학교에 넣고 싶어서요.”

“학교?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면소에 가서 호적 등본을 가지고 오래서요.”

“그럼 호적계로 가시죠.”

하고 서기는 돌아서 버렸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거푸 물을 용기가 없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장꾼에게 물어서 호적계 앞으로 갔다.

“아들을 학교에 넣으려구 허는데 호적 등본이 있어야 된답니다.”

“성명이 누구지요?”

“김성인 ××면 ××리 김성호의 아들이에요.”

귀에다 연필을 꽂은 면서기는 두꺼운 장부를 뒤적거렸다.

“에 —— ××면 ××리라 —— 부친이 김성호 씨라구요?”

“네.”

“김성호 씨——에, 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인이라구요? 몇 살이에요?”

“여덟 살 됩니다.”

면서기는 장부를 몇 번이나 뒤적거린 후 고개를 기울이며

“김성인은 장부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김용인은 있습니다만. 에, 네 살로 올라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성인네 아주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서기를 쳐다본다. 서기는

“아니 아주머니, 내가 잘못 봤단 말씀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김용인, 네 살로 올라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지 않을까요? 맥에서 는 성인이라구 부르셔두 호적에는 용인이라구 오른 게 아닐까요?”

“그래도 개가 여덟 살인데…….”

“내 생각엔 아마 출생 신고를 늦게 허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올핸 학교에 넣지 못허겠구먼요.”

“글쎄요, 즉시 호적을 고치게 허시죠.”

면서기는 이렇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인이의 호적은 고칠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호적에 올라 있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용인이란 성인이의 이복 동생이요 호적상으로는 그의 생모가 어엿한 본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는 그 때부터 짜장 성인네 아주머니 혼자만의 자식이 되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출가도 못한 채 친정집 호적란에서 ‘몽달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였건만 성인이가 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아직 벌어 준다는 것은 그에게 삶의 보람을 이어 주는 끈이 되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촌부로서는 아주 난산 끝에 성인이라는 얻었다. 업치기 덮치기로 산후가 좋지 못하였고 훗배를 몹시 앓았다. 그러나 그는 사흘을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부엌 바닥을 밟아야 훗배가 낫지. 지그시 누워만 있으니, 날 리가 있다구.”

하고 빈정대는 소리가 산실에까지 들렸기 때문이다. 농한기라 농사도 그리 바쁘지 않았건만.

성인네 아주머니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았다. 그 아픔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한 애정으로 가라앉았다.

성인이는 ‘손님’ ‘홍역’ 같은 제구실도 털없이 치르고 충실하게 자라났다. 외처에서 첨과 잘 지낸다는 남편에게는 또 산고가 있었다고 전해지곤 하였다.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치른 것은 그런 무렵이었다.

성인네 아주머니가 봉당에서 잔치에 쓸 두부콩을 갈고 있는데, 안방에서 담뱃대를 문 채 동리 노인들과 심심풀이로 목화씨를 빼고 있던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사내가 어떻게 그리 오래 홀애비살이를 할 수 있수. 내 아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우. 그렇지 않우?”

“그럼 성인 엄마 살림을 내지…….”

“천만에, 맏며느리 내놓는 일두 있수? 안 될 말이지…….”

“그래 오래됐수? 작은집 얻은 지가. 성인 할머닌 보신 일 있수?”

“오 년 된다우.”

하다 담뱃재 쏟는 소리가 툭툭 난다.

“아유 오래구랴. 그래 어렵디까?”

“맵시 있구 솜씨 좋구 어른 알아보구…… 귀엽지 않을 리 있수?”

“흥, 딸의 시앗엔 바늘방석, 며느리 시앗엔 꽃방석이라더니…….”

동리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인네 아주머니가 측은하였던지 입바른 소리를 한다.

“내 아들이 좋아하면 그만이지. 먼저 얻은 며느리라구 피가 섞였나, 살이 섞였나…… 사내가 처첩 두는 게 그리 흥이유. 내 환갑날엔 오라 해서 절 받겠수.”

성인네 아주머니는 이 대화를 봉당에서 모조리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서 말이나 되는 콩을 끝까지 갈아 치웠다.

그런것 저런것 다 참아 왔다. 고추같이 무서운 시집도 꿀꺽 않고 살았다. 그뿐이라. 그렇게 아쉽고 귀여운 아들——오직 하나의 삶을 잊는 그 아들을 하는 수 없이 내놓기까지 하였다.

‘백지 응소(白紙應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아래 그 아들을, 무엇이라 비겨 말할 수도 없는 그 아들을 떼어 보냈다. 그러나 태호와 승득이하고 같이 나간다는 구름 같은 허무한 위로로 마음을 달랬던 것이다.

그 태호와 승득이는 돌아왔는데, 해방이 되어 돌아왔는데…….

미칠 노릇이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마을로 건너가는 시내의 징검돌을 한달음으로 넘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몸이 질둔하여 웃음을 터뜨리며 돌을 더듬었던 성인네 아주머니였는데.

진종일 김을 매어도 허리 하나 앓지 않았던 그녀였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대체 몇 살일까?”

그녀의 힘찬 절구 소리가 쿵쿵 울릴 적마다 이런 말이 오고 갔다.

“글쎄 우리 노마 산구완 해 줄 때가 마흔다섯 살이랬으니, 걔가 지금 여섯 살…… 어머나 갓쉰이구요.”

하고들 새삼스레 놀랐다.

“늙지두 않아. 내가 시집올 때나 이때나 그리 다르다구?”

사실 성인네 아주머니의 이목구비가 널찍넓찍한 시원한 생김새는 시앗을 보아도 소박데기가 되어도 변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성인네 아주머니의 얼굴은 몇 달 사이로 오종종해지고 넓어진 저고리 품이 허청으로 돌았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휘적휘적 마을로 들어섰다.

그날 밤 성인네 아주머니는 기진 맥진하여 몇 달 만에 깊은 잠을

잤다. 훨훨 타던 것이 모조리 타 버려 사풋이 재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잠이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꿈을 꾸었다.

화안한 은세계였다. 넓은 벼덩 같은데 차일이 처져 있고, 그 차일 밑에서 신랑 신부의 초례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모 관대한 신랑이 화관 쓰고 원삼 입은 신부와 마주섰다. ‘아 성인이 !’

성인네 아주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렀다. 성인이가 거기 사모 관대하고 서 있지 않는 것이냐? 그는 아들을 얼싸안으려 달려가려 하였으나 오금이 붙어 떼어지지를 않는다. 그래 초례나 마친 다음, 하며 신부 쪽을 보니 항상 마음에 있던 마루터기 솜틀집 딸순이가 화관 쓴 머리를 수줍은 듯 다소곳이 숙이고 있는 것이다.

“아이구 아이구.”

환흰지 신음인지 무엇이 가슴 위로 치받쳐 올랐다.

“성인아——인젠 언제 죽어두.”

하는데 신랑 신부 사이 초례상에 놓였던 오리가 울기 시작했다.

“깍 깍 깍 깍.”

“어마나 초례상에 까치는 웬…….”

하는데 잠이 깨었다.

벌떡 일어나 뜰로 내려섰다. 밤새 내렸는지 은세계다.

깍 깍 깍 깍

까치는 눈이 하얗게 실린 감나무 가지에 와서 우짖고 있었던 것이다.

“반갑게도 짖는구나. 반가운 소식이 오려나? 성인이가 올려는 지.”

가슴이 소리가 나도록 뚝뚝거렸다.

부리나케 소쇄를 했다.

“차 시간에 대 가야지.”

입밖에 내어 중얼거렸다. 서두는 동안 그는 어느덧 그날은 꼭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받은 듯한 환각을 갖게 되었다.

꿈과 까치 짖는 소리가 백지 한 장의 차로 허늘거리는 그의 이성을 뒤집어 버리고 목말라 타는 마음에 어떤 암시를 주었던 것이다.

“이런 눈길을…….”

하고 집사람들이 불드는 것을 뿌리치고 푸근히 눈이 쌓인 길로 나섰다.

성인네 아주머니의 발바닥은 거의 땅에서 떨어져 있었다.

휘청휘청 —

산모퉁이를 돌았다. 시야가 확 터져 산봉우리를 뜯 아침해를 받아 찬란한 은세계가 나타난다. 넓은 베딩 은세계 —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아이구 날씨도 좋아. 혼인날이 이렇게 좋아야 신세도 좋은 거야.”

성인네 아주머니는 기쁜 듯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마루터기 솜틀집이 보인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든 듯 깜짝 놀란다.

“아이 망칙해라. 내가 참 미쳤어. 아무리 며느리 보는 게 좋더라도 초렛날 사돈집에 가다니 참.”

혀를 차고 발길을 돌린다.

휘청휘청 기쁨이 벽차 몸부림이 쳐진다. 한참을 그렇게 걸었다.

길섶 초가집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다. 주막집이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정신없이 집 속을 기웃거렸다. 장골들이 서넛 아침부터 해장을 하고 있었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홍청홍청 주막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차린 것 없어두 많이들 잡수슈.”

술꾼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명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낙네가 수다스럽게 술 권하는 건 무엇합니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랍니다. 춤이라두 추겠어요.”
하고 술병을 들어 따르려 한다.

“아이구 안주가 하나두 없네. 얘, 부엌에 누가 있니. 어서 안주 좀 더 나오너라.”

소리를 지른다. 술꾼들은 그제야 서로 눈짓을 했다. 침묵이 흘렀다.

주막집 색시가 행주치마 끝으로 손을 씻으며 얼굴을 내민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아이구 아가!”

하고 그 손을 불들고

“자 내게 술 한 잔만 따라 다우. 뭐 아무리 못 먹는 술이기루 오늘 이야 못 마시겠냐.”

주막집 주인이 나와 눈짓으로 술을 따르라고 권한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떨며 따라 주는 술을 한숨에 마셔 버리고 한숨을 쉬며

“인젠 언제 죽어두 좋수.”

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금세 손벽을 치고 웃으며 웃고 름 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나두 참 환장을 했지. 이런 경삿날 사위스럽게 눈물을 빼다니…….”

술이 그녀의 머리를 더욱 어지럽게 하였다.

“정말 춤 좀 춰 볼까요, 이렇게.”

팔짓을 하며 허리를 내젓는다.

“내가 참 미쳤지요? 정말 미치듯이 기쁜 걸요.”

성인네 아주머니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우뚝 섰다.

“참 모렌 신부례를 헐 텐데. 아이구 바쁜 것을 이렇게 놀구 있네…….”

혼자 중얼거린 후 오골조골 주름을 잡으며

“색시 구경허루 오슈.”

하고 어이없이 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 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인네 아주머니는 사흘 후 양지 비탈 눈속에 묻혀 있는 것을 나무꾼 아이에게 발견되었다. 취한 채 눈에 쓰러져 그대로 곱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생애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시달림 속에서 보낸 그녀의 사안(死顏)에는 평화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환희가 굳어 있어, 그것이 한동안 마을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1953. 1.)